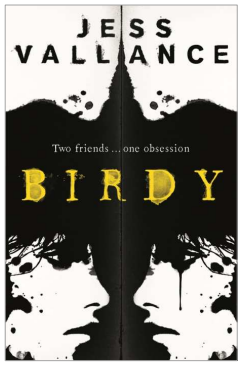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BIRDY
가제 : 버디
저자 : Jess Vallance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15년 7월 2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영화 제작 예정, 스페인 판권 계약 체결**
*** 집착과 비극적인 파국으로 치닫는 두 친구의 우정에 관한 스릴러 소설**

혼자 지내는 생활에 익숙한 열다섯 살 소녀에게 갑자기 친구가 생기고, 외로웠던 시간을 다시 떠올릴 수 없을 만큼 둘 사이에 깊은 우정이 피어난다. 어쩌면 행복하게 끝맺을 수 있었던 두 사람의 인연은 배신과 집착으로 조금씩 얼룩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다. 서로가 없는 시간을 견딜 수 없었던 두 친구가 서로의 존재 때문에 광기 어린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괴물이 되어버린 과정을 세밀하게 그린 이 스릴러 소설은 곧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여름방학이 막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푹푹 찌는 날씨 탓에 다들 축축 늘어져 있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프란시스를 호출한다. 부탁할 일이 하나 있다는 서두와 함께, 선생님은 내일 새로 전학생이 올 예정인데 며칠 동안만 곁에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다. '너처럼 센스 있는 학생'이라면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말이 좀 의아하긴 했지만, 프란시스는 그러겠다고 대답한다. 단짝은커녕 같이 어울리는 친구 하나 없고, 대놓고 놀림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한 공간에 있어도 다른 아이들에게 존재감이 거의 없는 사람, 그런 아이가 바로 프란시스 버디였다. 전학을 온다는 아이의 이름은 앨버타 피츠로이 블랙. 피츠로이라는 거창한 중간 이름에서부터 이 꾀죄죄한 학교에 다닐 만한 아이는 아닐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교무실에서 만난 앨버타는 역시 그랬다. 키도 프란시스보다 훨씬 크고 가무잡잡한 피부에 늘어뜨린 금발, 환한 미소와 탄탄한 피부, 그리고 다들 대충 변형해서 입는 교복 대신 스커트부터 블라우스, 목 리본까지 완벽하게 차려 입은 모습까지, 한 눈에 봐도 잘 사는 집에서 곱게 자란, 건강하고 쾌활한 아이였다. 왜 이런 아이가 이런 학교에 왔을까? 의아했지만 프란시스가 가진 단서라곤 전날 선생님이 주춤하며 귀띔한, '최근에 힘든 일을 겪은 아이'라는 사실 하나가 전부였다. 그런데 며칠만 학교 구석구석을 알려주면 되겠다고 생각한 프란시스의 임무는 뜻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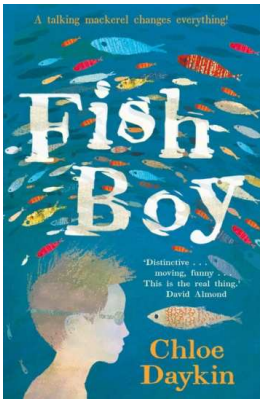
도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두 살 때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프란시스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혼자 보내는 시간에 너무 익숙했다. 주말에도, 기나긴 휴일이나 방학에도 남들이 평범하게 즐기는 여가 생활이나 여행, 쇼핑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었다. 쪼들리는 형편에 최근 들어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침묵과 우울한 분위기가 가라앉은 집안에는 더욱 어두침침한 공기가 감돌았다. 친구를 사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성도 그다지 느끼지 못했던 터라, 의무적으로 챙겨주려던 앨버타가 대뜸 프란시스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사인을 보내기 시작하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은 어느새 둘도 없는 단짝이 되고, 뭐든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다. 프란시스는 앨버타와 또래 여학생들이 하는 일들을 처음으로 함께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면들을 발견하고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벅찬 행복을 경험한다.

그러나 앨버타만 있으면 되는 프란시스와 달리 앨버타는 다른 아이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에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무엇이든 프란시스와 함께하려던 것을 프란시스 몰래, 프란시스 없이 하려고 한다. 친구가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마음에 시작된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이 우정을 포기할 수 없는 프란시스의 집착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결국 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과 싸움으로 번진다. 누군가의 죽음, 목숨까지 건 협박까지, 이야기는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결말을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사태가 다 마무리된 뒤에야 세상에 드러난다.

<저자 소개>

제스 발렌스(Jess Vallance)는 교육 자료와 다양한 주제의 기고문을 쓰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위 작품이 데뷔 소설이며, 두 번째 소설 『The Yellow Room』으로 올해 CILIP 카네기 메달(CILIP Carnegie Medal) 후보로 선정됐다.



제목 : FISH BOY
가제 : 물고기 소년
저자 : Chloe Daykin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7년 3월 2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이탈리아 판권 계약 체결**

*** "책을 펼치고 다 읽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었다. 정말 특별하고, 매력적이고, 감동적이고, 재미 있는 이야기다." – 카네기 메달과 가디언 아동 소설상 등을 수상한 작가 데이빗 아몬드**

*** "이 소설은 판타지가 아니라 그냥 환상적인 소설이다. 줄거리를 요약하는 건 이 반짝이는 작품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 「옵저버*(The Onserver)*」 리뷰**

피부가 파도처럼 출렁이는 소년이 손가락이 강철 같고 곰처럼 힘센 소년과 친구가 된다.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들이키고 산소를 내뿜듯 괴로운 일이 있으면 바닷속에 들어가 다 내보내고 좋은 생각만 얻어서 돌아오는 '물고기 소년'에게 키는 더 작지만 힘은 훨씬 센 새 친구는 마법 같은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두 사람은 누구에게도 함부로 나누지 못한 신비한 바닷속 비밀을 공유한다.

열두 살 빌리는 학교가 끝나고 틈만 나면 수영을 하거나 해안가 절벽을 맨발로 기어오르느라 바쁘다. 시간까지 재가며 달음박질을 치기도 하고 파도에 가만히 몸을 맡기기도 하지만 빌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닷속에 깊이 잠수해서 물속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우울한 생각들로 가득한 머릿속을 바닷물이 깨끗이 씻어내 주는 기분만큼 위안이 되는 건 없었다. 빌리의 가장 큰 고민은 아픈 엄마와 눈만 마주치면 괴롭히는 학교의 못된 아이들이다. 엄마는 늘 몸에 힘이 없고 금방 지쳐서 거의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지낸다. 의사 선생님들도 엄마가 왜 아픈지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 아빠는 엄마를 치료하고 빌리를 보살피기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서도 아빠는 수영에 푹 빠져 정해진 저녁 시간을 놓친 빌리에게 밥을 차려주고, 물을 뚝뚝 흘리며 대문에 들어서도 따뜻한 가운을 둘러주고, 썰렁한 농담으로 자꾸 웃기려고 애쓴다. 그래도 빌리는 엄마가 이제 그만 아팠으면, 그래서 아빠도 쉬면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다.

새로 장만한 나이키 운동화가 사라져서 이상하다고 했더니, 역시나 다음 날 학교에서 발견됐다.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터덜터덜 교실에 들어서는 빌리에게 "거 신발 한 번 멋지네!"라고 외친 주인공, 누구보다 앞장서서 빌리를 괴롭히는 제이미의 발에 새 운동화가 있었다. 내놓으라고 말할 용기도 없었지만 그래 봤자 더 거센 공격이 가해질 걸 잘 알기에 빌리는 한눈에 자기 운동화인 걸 알고도 침을 꿀꺽 삼키고 만다. 하지만 길길이 날뛰지 않는 빌리의 반응이 영 만족스럽지 않은지, 제이미와 단짝 오스카까지 나서서 괴롭히려던 찰나 어디선가 그만하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처음 본

그 아이의 이름은 패트릭 그린. 손가락이 강철처럼 강하고 곰처럼 힘이 센 전학생이었다.

마술사를 꿈꾸는 패트릭은 솜씨가 너무 좋아서 별의별 신기한 손 마술로 빌리의 정신을 쏙 빼놓곤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 사람을 끈끈하게 엮어준 건 자연에 대한 사랑과 과학을 좋아한다는 점이었다. 텔레비전 과학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학자 데이빗 애튼버러의 열렬한 팬인 빌리는 그가 나오는 방송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자연의 신비에 심취했는데, 패트릭이 자신만큼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 아는 것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둘은 더욱 가까워졌다. 빌리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사실을 패트릭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사람들이 빌리를 '물고기 소년'이라고 부른 건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고 못된 제이미는 그 별명을 이용해서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며 괴롭히곤 했지만, 어느 날 빌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존재로부터 그 별명을 듣는다. 바닷속에서 만난 고등어 한 마리가, 저 멀리서 빌리를 향해 다가오더니 '물고기 소년'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들은 것이다! 깜짝 놀라 얼른 해변으로 나와버린 빌리는 머릿속에 생생한 고등어의 음성을 또렷이 기억했다. 잘못 들었나? 착각한 건가? 알 수가 없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바닷속에 들어가보지만 그 고등어는 찾을 수 없다.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진짜 같았던 이 일을 혼자 기억하고 있던 빌리는 패트릭에게 털어 놓는다. 패트릭도 다른 사람들처럼 빌리를 어딘가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면 어쩌나 걱정도 됐지만 누군가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패트릭은 전혀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다. 오히려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는, 빌리에게 꼭 다시 바다에 나가 그 고등어를 만나보라고 이야기했다. 다시 나타난 고등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라는 것이다. 의외의 반응에 놀라기도 하고 기분이 한결 편안해진 빌리는 패트릭의 말대로 해보기로 하고, 꼭 다시 그 고등어가 나타나기를 빌며 바닷속을 누빈다. 그때부터 바닷속에서 빌리에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 둘 일어난다. 물고기와의 대화가 이어진 건 말할 것도 없다.

늘 바로 곁에서 패트릭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준 덕분에 빌리는 움츠린 가슴을 펴고 조금씩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기 시작한다. 고된 일상 속에서도 늘 유머를 잃지 않고 엄마를 낫게 할 방법을 열심히 찾아 다닌 아빠의 노력 덕분에 엄마의 상태도 서서히 개선되고, 무엇보다 원인을 몰라 더 답답했던 아빠와 빌리의 앞에 병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나면서 조금은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다.

따돌림, 희귀병과 같은 무거운 주제를 맑은 소년의 마음으로 바라본 상상력의 세상을 빌어 따뜻하게, 그러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려낸 특별한 이야기다.

<저자 소개>

클로이 데이킨(Chloe Daykin)은 뉴캐슬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2014년에 '노던 작가 상(Northern Writers Award)'을 수상했다. 현재 노섬벌랜드에 살면서 아티스트, 디자이너, 각본가,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